



‘복지 비용’ 및 ‘노후 준비’의 관점에서 본 가계 지출 구성 변화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최장훈 연구위원

- 최근 우리나라는 조세 및 준조세(사회보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스스로도 노후 준비를 충실히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본고는 강제적인 복지 부담,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 소비지출 등이 실제 우리나라 가계 경제에 지난 10년간 어떠한 형태로 변화해 왔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함
- 2006년과 2016년 사이에 전체 가계 소득에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흑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보면 소비지출의 비중은 낮아진 반면 흑자액과 비소비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비소비지출 비중은 2006년 17.4%에서 2016년 18.6%로 1.2%p 상승해 조세나 사회보험 보험료 부담이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흑자액은 동 기간 무려 4.8%p나 상승하여 조세와 사회보험 보험료에 대한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저축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 결과 소비지출의 비중은 동기간 64.1%에서 58.1%로 무려 6.0%p나 감소하여 가계 부문의 내수는 부진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의 세부 항목에 대한 비중 변화를 보면 조세, (공적)연금 보험료, 사회보험 보험료 등이 대표적으로 비중이 크게 확대된 항목으로 나타남
 - 반면, 식료품, 의류, 교통 관련 소비지출 항목들은 비중이 대표적으로 감소한 항목으로 나타나며 소비 부진을 주도하고 있음
- 정책 당국은 복지 재원을 위한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만큼, 가계가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총체적 부담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또한 가계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흑자 규모 확대는 공적 복지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만큼, 효과적인 사적 노후 보장 수단도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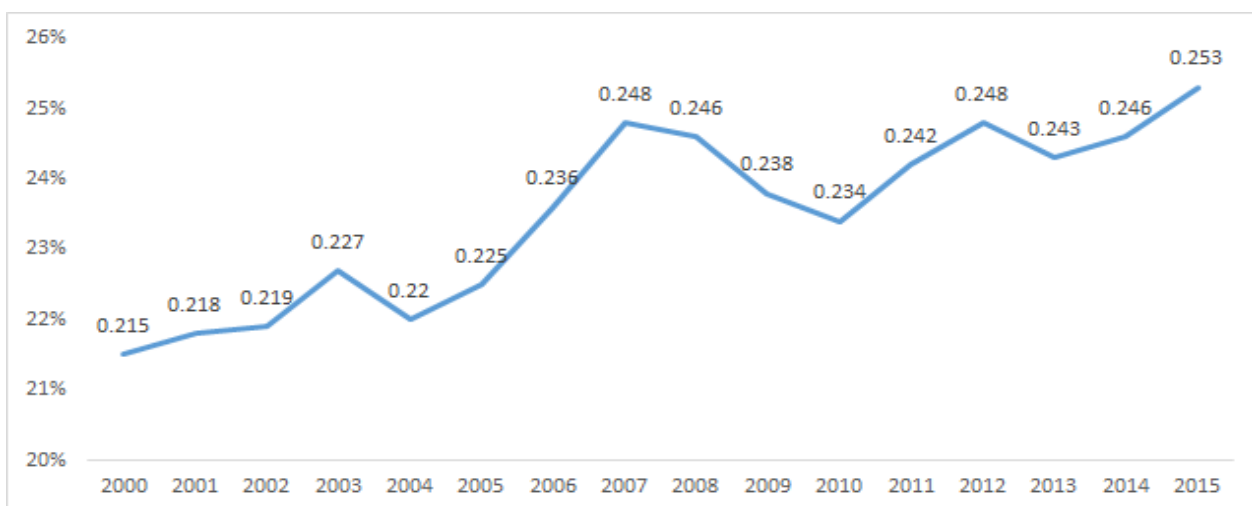
1. 검토 배경



- 최근 우리나라는 복지 자원 마련을 위한 조세 및 준조세(사회보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스스로 노후 준비를 보다 충실히 해야 할 필요성도 동시에 커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의 합계인 국민부담률¹⁾은 2000년 21.5%에서 2015년 25.3%로 3.8%p 증가함
- 국민 개인이 노후 준비를 하는 수단인 IRP나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시장 모두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그림 1〉 국민 부담률 추이



자료: OECD

- 본고는 강제적인 복지 부담,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 다양한 항목의 소비지출 등이 실제 우리나라 가계 경제에 지난 10년간 어떠한 형태로 변화해 왔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함

- 복지 비용, 민간 저축, 소비지출 등의 개념들은 주로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이를 부담하는 가계 경제의 관점²⁾에서 볼 경우 논의의 현실성이 높아질 것임
- 우리나라 가계 경제는 복지 비용과 노후 준비 부담이 커지면서 내수 불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가계 경제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 국민부담률 = (조세 + 사회보험 보험료) / GDP

2) 가계 경제의 관점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가계부를 보는 것과 유사하여 상품가격에 반영된 간접세가 분석범위에서 제외됨

- 이를 위해 본고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³⁾ 자료를 바탕으로 2006년과 2016년의 가계 경제의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함

2. 소득의 구성과 비중 변화



- 가계 소득의 구성은 어떻게 창출하는가(소득 측면)와 어떻게 처분하는가(지출 측면)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본고는 지출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함

- 소득은 소득 자체의 종류나 처분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의 구성으로 볼 수 있음
 - (지출 측면) 소득 = 소비지출 + 비소비지출 + 흑자액
 - (소득 측면)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비경상소득
- 지출 측면의 소득 구성에서 흑자액은 예금, 투자, 부채의 원금 상환 등 가계 저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비소비지출은 조세, 사회보험료, 이자 상환 등 국민 부담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단, 개인연금 보험료는 저축의 성격이 강하나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와 함께 보험 항목으로 분류되어 소비지출의 한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음

- 2006년과 2016년 사이에 전체 가계 소득에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흑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를 비교하면 소비지출의 비중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비소비지출 비중은 2006년 17.4%에서 2016년 18.6%로 1.2% 상승해 조세나 사회보험 보험료 부담이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⁴⁾
- 흑자액은 동 기간 무려 4.8%나 상승하여 국민부담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저축을 빠르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남
- 그 결과, 소비지출의 비중은 동기간 64.1%에서 58.1%로 무려 6.0%p나 감소하여 가계 부문의 내수는 부진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가계동향조사는 통계청의 통계자료로 가구의 생활수준실태와 그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국민소비수준 변화 측정 및 분석, 그리고 각종 경제, 사회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 조사규모는 소득부문 월간 약 4,300가구, 지출부문 월 1,000가구임

4) 조세, 사회보험 보험료 등 세부 항목의 비중 변화는 3장에 후술할 예정임

〈표 1〉 우리나라 가계 소득 중 주요 부문 비중 변화

소득(지출 측면)	2006년	2016년	변화분
소비지출	64.1	58.1	- 6.0
비소비지출	17.4	18.6	+ 1.2
흑자액	18.5	23.3	+ 4.8
합계	100.0	100.0	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기초로 산출

■ 가계 경제를 소득 수준별로 보아도 소비지출의 둔화와 저축의 증가 현상은 모든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임

- 조세와 준조세를 주로 포함하는 비소비지출의 경우 소득 하위 40%인 1, 2분위에서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3, 4, 5분위에서는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흑자액의 경우 전체 소득에서의 비중이 3.1~12.8%p로 큰 폭 증가하여 저축의 증가는 모든 소득 계층에 걸쳐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 결과, 소비지출의 비중은 전체 소득 계층에 있어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내수 경기에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표 2〉 소득 계층별 주요 부문 비중 변화(2006년 대비 2016년)

소득(지출 측면)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소비지출	- 12.4	- 9.2	- 6.4	- 4.4	- 5.1
비소비지출	- 0.4	- 0.2	+ 1.2	+ 1.3	+ 1.4
흑자액	+ 12.8	+ 9.4	+ 5.2	+ 3.1	+ 3.7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기초로 산출

3. 세부 부문별 비중 변화



■ 본장은 10년간의 비중 변화를 세부적인 분류를 대상으로 파악함으로써 가계 경제에 나타난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함

-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분류를 바탕으로 가장 비중이 확대된 항목과 가장 비중이 축소된 항목을 선정하고자 함

- 흑자액은 그대로 추가적인 세부 분류가 없으나 비소비지출의 경우 경상조세, 비경상조세, 연금, 사회보장 등 7개 항목⁵⁾으로 세부 분류됨
- 소비지출은 총 98개 세부 항목⁶⁾에 대해서 지난 10년간 전체 소득에 대한 비중 변화를 파악하였음

■ 2006년 이후 10년간 전체 소득에서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사회보험료와 조세 등 국민부담과 관련된 영역인 것으로 나타남

- 흑자액을 제외하면 국민건강보험을 주로 포함하는 사회보험 항목, 소득세와 재산세 등 정기적인 조세인 경상 조세가 가장 비중이 크게 증가한 세부항목임
 - 그 외에도 국민연금을 주로 포함하는 (공적)연금⁷⁾이 5번째로 비중이 확대된 세부 항목으로 나타나 조세, 사회보험료 등 국민부담과 관련한 세부항목들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
- 소비지출 관련 항목에서는 월세 등을 포함하는 실제 주거비(4위), 자동차 구입(6위), 민영보험을 포괄하는 보험(7위), 단체 여행비(8위), 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9위), 외래 의료서비스(10위) 등이 포함됨
 - 자동차 구입이나 단체 여행비와 같은 항목보다는 주거비나 의료비와 같은 비자발적 성격의 소비나 저축 성격의 보험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내수 경기에 대한 기여는 낮을 것으로 판단됨

〈표 3〉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10개 세부 항목

항목	2006년	2016년	증감률
흑자액	18.48	23.31	+ 4.83
사회보험*	2.07	3.07	+ 1.01
경상조세*	2.64	3.34	+ 0.70
실제 주거비	1.41	1.84	+ 0.43
(공적)연금*	2.52	2.95	+ 0.43
자동차 구입	1.73	2.15	+ 0.43
보험	1.61	1.98	+ 0.37
단체 여행비	0.44	0.81	+ 0.37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0.87	1.20	+ 0.32
외래 의료서비스	1.00	1.26	+ 0.26

주: * 는 비소비지출 항목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기초로 산출

5) 7개 항목은 경상조세, 비경상조세, (공적)연금, 사회보장, 이자비용, 가구 간 이전지출, 비영리 단체로 이전이며 (공적)연금과 사회보장은 관련 보험료를 의미함

6) 소비지출은 12개 중분류로 나누어지고 각 중분류 밑의 세부항목을 모두 합하면 98개로 나타남

7)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연금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독자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본고에서는 (공적)연금으로 표기함

■ 전체 소득에서의 비중이 가장 많이 감소된 항목에는 소비지출 관련 항목들이 대부분 포함됨

- 식료품, 의류, 교통 관련 소비지출 항목들의 비중이 대표적으로 감소하면서 소비 부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비지출에 포함되지 않은 유일한 항목은 비소비지출의 가구 간 이전지출로서 경조비나 가족 간의 송금 등을 포함하고 있음

〈표 4〉 비중이 가장 많이 감소한 10개 세부 항목

항목	2006년	2016년	증감률
통신서비스	4.10	2.81	- 1.29
운송기구연료비	3.49	2.44	- 1.05
가구 간 이전지출*	5.46	4.59	- 0.87
식사비	8.50	7.69	- 0.81
정규교육	2.72	1.99	- 0.73
연료비	2.83	2.16	- 0.67
기타 서비스	1.11	0.58	- 0.53
육상운송	0.86	0.37	- 0.48
직물 및 외의	3.07	2.64	- 0.43
곡물	0.78	0.39	- 0.40

주: 1) *는 비소비지출 항목

2) 기타 서비스는 부동산매매수수료, 법률수수료, 각종 응시료 등의 서비스 비용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기초로 산출

4. 시사점



- 정책당국은 복지를 위한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이 모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가계가 체감하고 있는 총체적인 부담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향후 복지 수요의 증가로 조세, 사회보험료 등에 대한 국민부담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 가계 경제의 구매 여력이 장기적으로 위축될 것이 우려됨
 - 조세 및 사회보험료에 대한 전반적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면, 정책당국은 징수자의 입장에서 개별 사안으로 다루기보다는 가계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부담 규모나 상호 형평성 등을 세심하게 다루어야 부담 증가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임

■ 가계 경제의 흑자 규모 확대는 공적 복지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만큼, 효과적인 사적 노후 보장 수단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복지 정책의 일관성, 재정 건전성 개선을 통해 현재의 복지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신뢰를 형성하는 것도 국민의 노후 불안을 덜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임
- 가계의 저축이 투기적 목적이거나 단기성 투자 등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안정적인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적 연금이나 장기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kiri**